

꽁꽁 얼어버린 손발... 핫팩 붙이고 방역 사투

르포 광주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보니

의료진·공무원 옷 겹겹이 끼입고 추위 극복 사명감으로 버텨...“고맙다, 한마디가 큰 힘”

“손과 발이 꽁꽁 얼어붙을 것 같은 한파에도 코로나19 사태 종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힘들지만 큰 힘이 됩니다. 하루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해 모두가 예년의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매서운 추위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10일 오전 9시께 광주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역에서 연일 10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날 선별진료소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보건소 건물을 따라 수백미터 길게 늘어선 접착 등 검사자들의 대기 행렬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실감케 할 정도였다.

특히 선별진료소 의료진과 보건소 직원 등 10여 명은 정선없는 상황 속에서도 힘든 내색 없이 시민 안전을 위해 방역 최일선에서 묵묵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의료진들은 저마다 온몸에 핫팩을 붙

이고 옷을 겹겹이 끼입고 있었고, 물려드는 피검사자들에게 거리두기 안내와 문진표 작성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느라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추운 날씨 탓에 의료진들의 귀와 볼은 빨갛게 상기됐고, 방호복과 KF94 마스크로 인해 숨조차 편하게 쉴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한파를 대비해 선별진료소 곳곳에 난로와 방한텐트가 설치됐지만, 실외에서 3시간 칼바람을 온몸으로 버티는 의료진들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기엔 역부족이었다.

한 의료진은 입김으로 인해 페이스실드에 계속해서 습기가 차 피검사자들을 대우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속 정확한 검사를 위해 반복해서 습기를 닦아내며 코로나 방역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였다.

파견 근무를 나온 서구 환경교통국 소속 김 모씨(30)는 “업무를 직접 해보니 너무 춥고, 종종 폭언을 일삼고 통제에

안 따라주는 민원인도 있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면서 “하지만 시민들의 ‘고맙다,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을 얻는다”고 미소를 지었다.

근무자 박 모씨(38)도 “선별진료소 지원 업무를 하는 날이면 다리도 아프고 힘이 빠져 퇴근 후 집에서 바로 쓰러질 정도로 힘들다”면서 “하지만 제 행동이 나라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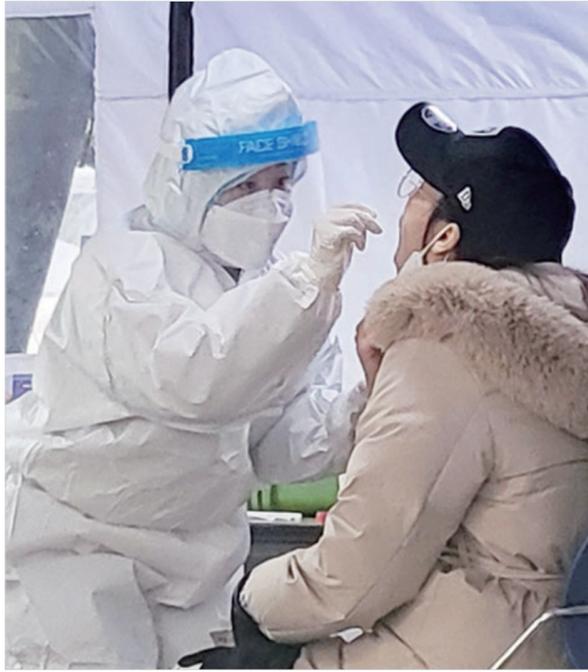
한차례 사투를 벌인 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선별진료소 현장 인력들은 저마다 남은 일을 마무리한 뒤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서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600여명으로, 현장에 투입된 인력 10명이 검사하고 안내하기에는 고단한 시간이였다.

한 의료진은 오전 마지막 검사자가 떠나가자 긴장이 풀렸는지 페이스실드를 벗고 옆에 있던 의자에 탈착 주저할 기도 했다.

이정동감염병관리팀장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일지라도 지역에서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1월에만 서구 선별진료소에서 1만 2,000명이 검사를 받는 등 근무자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부서뿐만 아닌 청내 모든



광주지역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전 서구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체검사를 받고 있다. /홍승현 기자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늦추고 팬데믹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	관주	광양
나주	순천	여수
목포		

일출 07:41 일몰 17:39
월출 12:57 월몰 01:37

장성	-4~-1	흑산도	0~2
담양	-5~0	구례	-5~0
화순	-4~-1	곡성	-5~-1
영광	-3~-1	완도	0~1
함평	-3~0	강진	-2~1
무안	-3~-1	장흥	-2~0
영암	-3~0	해남	-2~0
진도	-2~1	고흥	-2~1
신안	-2~0	보성	0~-8

목포	만주 0:52 20:59	여수	만주 03:49 15:54
	간조 01:37 14:07		간조 09:32 22:30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없이 131

법원, 고 전두환 형사재판 공소기각

법원이 고 전두환씨의 5·18 형사 재판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1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점씨에 대해 “피고인이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2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363조 제1항 ‘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최환준 기자

경찰, ‘채용비리’ 버스회사 수사 착수

버스 기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정규직 전환 채용 금품 상납 요구 의혹과 관련해 사측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비정규직 기사로부터 채용 전환을 빌미로 금품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시내버스 운수회사 임직원 2명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같은 회사 기사 A씨는 금품 상납 요구, 교통사고 합의금 떠넘기기 등 사내 부조리가 있었다고 가족에게 토로했다. 지난해 6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유족과 운수회사 노조 측은 A씨가 생전에 남긴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채용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사측 임직원 2명을 형사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

고 배은심 여사 자택 ‘추모공간 조성’ 논의

동구 “추후 유가족과 상의 통해 건립 계획”

광주 동구가 평생을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고 배은심 여사의 자택을 추모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0일 동구에 따르면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 여사는 1970년대 지산2동 주택으로 이사한 뒤 고인이 되기까지 같은 곳에서 지냈다. 이 열사가 이 집에서 초·중·고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 여사는 1987년 7월 5일 아들의 죽음을 뒤에도 거처를 옮기지 않고 30여년간 머물며 전국 노동·민주화 투쟁 현장을 누볐다.

1991년 대학생 분신 정국을 비롯해

2009년 용산참사, 2014년 세월호참사, 2016년 박근혜 하야 촉구 촛불집회 등 역술한 죽음이거나 부조리한 사회에 맞서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함께했다.

1998년에는 민주화법 및 의문사 진상규명법 제정을 촉구하며 422일간 농성을 벌였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유가족 회장을 맡아 전국의 민주화·인권투쟁 현장을 지켰다.

투쟁의 선두에 서다 보니 여러 차례 병변을 당하기도 했다. 1989년 전교조 해직 교사 복직을 요구하다 연행된 딸을 면회하려다가 폭행을 당하는 등 거리에서 맞고 최루가스를 마시는 일이

일상이었다.

동구는 지난해부터 배 여사와 가족을 여러 차례 만나 추모공간 조성 계획을 알리고 설득해 왔으나, 당시 여러 사정 등으로 건립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배 여사의 자택 주변에는 오지호 화백의 생가와 민족사인 문명랑씨가 오랜 기간 거주한 주택이 있으며, 동구는 이 구간을 따라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아직 장례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모공간 건립 내용을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추후 유가족들이 공간 활용을 수용한다면 배 여사와 이 열사를 기리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민빈 기자

5·18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TF 발족

구제 사각지대 해소 등 기대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명예 회복에 나선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0일 5·18 기념재단 및 관련 단체, 광주시 선양과, 31사단 군검찰 등이 참여하는 ‘5·18 관련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특별반(TF)’을 발족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소 후 유죄 확정판결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재심 절차가 마련돼 있어 이를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구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특히 5·18 당시에는 계엄령, 포고령 위반 등으로 다수의 기소유예 처분자가 발생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일부 시민이 명예 회복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군검찰 재기 사건을 이송받아 계엄령 위반 등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죄가 안 났’ 처분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에 광주지검은 명예회복 관련 절차가 보다 실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향후 유기적인 협조하에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신청 ▲군검찰 사건 재기 및 이송 ▲광주지검 처분변경 및 구급피의자보상 등 일련의 명예회복 절차를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DASCO
Development. Advance. Solution. Co., Ltd.
www.dasco.kr

창조와 혁신을 통해 100년 기업으로!!

다스코(주)는 흥익인간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고객이 감동하며 보람을 공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매출 5,000억원 목표

SOC사업

가드레일 / 교량난간 / 터널 방음벽 / 방음벽

신재생 e.사업

육상태양광 / 수상태양광

건축자재사업

합판탈형 데크플레이트 / 스틸 데크플레이트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WBM사업

구조용 선조립 / 용접철근(WBM)
BIM모델링

신기술 개발 선도업체 다스코가 4차산업을 주도하겠습니다.

본 사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동농골길 26-2 TEL. 061)370-2144

서울지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9길 26 H비즈니스파크 C동 801호 TEL. 02)3440-7800

당진1공장 (데크플레이트)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361-15 TEL. 041)431-8200

당진2공장 (단 열 재)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합덕산단1로 50 TEL. 041)431-8259

영 남 지 사 부산시 동구 초량동 29 KCA빌딩 405호 TEL. 051)518-3702

새만금공장 (WBM)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동동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산 블럭 2로트

다스코 가족회사
다스코
썬에코(수상태양광)
세라코(점토벽돌, 외장재, 수처리)
가스코(가드레일, 교량난간)
스틸코(철근용통·가공)
학교법인흥인학원(영산중·고등학교)
흥인(부동산 임대업)